

이론산책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의 도시연구 — 로스엔젤레스와 탈근대적메트로폴리스

한주연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1. 시카고에서 로스엔젤레스로

현대 도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점차 도시가 대도시화 된다는 것이다. 대도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와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잡한 하부구조가 요구된다. 도시 발달의 역사에 있어서 도시가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에는 제조업의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비롯된 산업혁명은 제조업 발달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파생되는 승수 효과로 인하여, 도시에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교통수단의 혁신은 생산성을 촉진하여 제조업 발달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효율적인 인구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 인구가 점차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되었다. 그에 따라, 도시화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었고, 대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시지리학에서 오랜 동안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후 대도시로 성장한 도시의 전형으로 여겨져 온 도시는 미국의 시카고였다.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Robert Park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시카고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물을 출간하였다. 이들의 연구들은 산업혁명 이전의 전자본주의적(pre-industrial) 도시와는 다른 특징을 축약하고 있는 산업도시로서의 시카고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 주었다. 도시구조 이론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모델은 시카고 학파의 많은 연구물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산업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시구조 분화의 특징을 명쾌하게 표현하는 모델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산업구조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구조의 광역화, 도시 내부 구조가 점차 복잡한 다핵도시(polycentric urban region)로 변화하는 현상(Kloosterman and Musterd, 2001) 등은 실제의 도시와 단순화된 동심원 모델과의 괴리를 심화시켜서, 시카고는 더 이상 도시 지리 연구의 이론적 근간이 출발하게된 장소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시카고 대신 도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의 특징의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도시로 주목받게된 장소는 로스엔젤레스이다. 로스엔젤레스는 선벨트 지역의 성장과 함께 호황을 구가하게 되었던 도시들 중의 대표적인 주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많은 선벨트 지역 도시들의 성장이 꺾일 만 했으며, 로스엔젤레스도 시카고를 밀어내고 뉴욕에 이어 미국 제 2위의 도시¹⁾로 자리잡게 되었다. 로스엔젤레스는 자동차가 도시 내부의 이동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발달하게된 대표적인 도시로 중심도시 주변에 많은 교외도시가 발달하고 있는 광범위한 대도

1) 미국도시의 순위는 중심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주변의 교외도시들을 포함하는 MSA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내 지는데 1990년 자료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가 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2위가 된다. Hartshorn, 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p.71 참조. 통계청(The U.S. Bureau of the Census)의 정의에 따르면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운티(county)에 걸쳐서 발달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통합된 도시지역을 의미한다.

시권(metropolitan area)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시카고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로스엔젤레스에 대해서도 UCLA와 남가주 대학 등 이 지역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저작물들이 출간되었는데, 이들 학자들의 군을 LA 학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Dear and Flusty, 1998). LA 학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리학자로 마이클 디어(Michael Dear)와 함께 에드 소자(Ed Soj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라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지리학과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아프리카 전문가로서 학자의 길에 들어선 에드 소자는 현재 UCLA의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과거 20 여년 동안 그가 이루어 놓은 연구업적들은 로스엔젤레스라는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사례연구로서, 그리고 도시지리학 연구에 탈근대적 도시연구라는 새로운 이론적 시각의 도입을 시도하는 중요한 연구 성과로 인정되고 있다. 1989년 이후 연작형식으로 출간된 그의 세 저서는 그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 세 저서는 1989년의 *Postmodern Geographies*, 1996년의 *Thirdspace*,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간된 세 권의 완결편이라 할만한 2000년의 *Postmetropolis*이다. 그의 이 세 저서는 그 논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세 권을 모두 나뉠대로의 독립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여, 뒤에 출판된 책의 논의를 따라가기 위하여 전작을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2. 비판적 공간 분석과 공간성의 세 가지 차원

그의 저서는 출간 후 그의 이론적인 시도 혹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법 등에 대해 후기구조주의적인(poststructuralist), 탈근대주의적인(postmodernist), 또는 여성주의적인(feminist) 다양한 시각으로부터 많은 논쟁과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Brenner, 2001). 그가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논의들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우선 그는 Postmodern Geographies에서부터 인간 생활의 공간성(spatiality of human life)을 강조해 왔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과 장소(spaces and places), 영토와 지역(territories and regions), 환경과 거주장소(environments and habitats)를 생산하는 집합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적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의 행위가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간성(spatiality)은 역사 및 사회적 과정의 부가물이나 결과로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간성은 그 자체가 인과성이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소자는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간적 차원도 앞의 두 차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상호의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꾸준히 주장하여 왔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그의 최근작인 Postmetropolis의 1절(Part I)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는 여기에서, 도시의 기원에서부터 LA로 대표되는 현재의 도시 발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설명하였다. 소자는 도시발달의 과정을 ‘geohistory of cityscape’로 재구성하려 하였는데, 소자에 따르면 이것은 결정론적인 공간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공간적 탐구와 분석(critical spatial inquiry and analysis)’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해 온 그 간의 연구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던 대안적 시각을 열어놓으려는 시도이다. geohistory란 지리와 역사 둘 사이에 우선 순위를 매기지 않고, 불가분의 필요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Postmetropolis에서는 공간적인 차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부분이 우선되는(putting first) 몇 가지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소자가 사용하는 cityscape라는 용어도 그 중의 하나이다. cityscape는 해석적이고 설명적인 목적을 위해서 강조되는 본질적인 공간성을 가진 역

사-사회-공간적 현상으로서의 도시(city)를 의미한다. cityscape에 보다 구체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는 ‘도시성의 공간적 구체성(spatial specificity of urbanism)’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와 도시의 지리적 영향권 안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회관계, 건축 양식, 인간 활동의 구체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city가 주변의 배후지역, 즉 non-city와 확연히 구분되는 도시성(urban-ness) 또는 도시적 생활양식(urbanism as a way of life)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지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해, cityscape는 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역동적이고, 그 영역의 범위는 더 광범위하다. cityscape의 영역 안에는 정형화된 도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덜 된 지역들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역도 도시적인 생활양식에 깊게 영향을 받고 있다거나 인간의 공동거주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synekism이 작용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cityspace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소자의 용어 중 가장 생소한 것이 바로 이 synekism이라 할 것이다. 한 집에 함께 모여 살게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synoikismos(원문의 이텔릭체)에서 기원된 synekism은 인간이 집과 같은 거주지, 즉 공유된 공간에 의도적으로 모여있거나 공동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상호의존성과 창조적인 시너지 효과를 의미한다. synekism은 밀집된 인간의 거주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 그리고 지역적 정주 체계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결절지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집적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의 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Postmetroplis의 1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흑요석(Obsidian)의 교역로에 위치하였던 Catal Huyük이 최초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당시에 나타났던 지역적 정주체계의 결절지에 위치하여 경제활동에 유리한 synekism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도시성(urbanism)이라는 DNA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synekis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하여 소자가 강조하려한 것은 우

리의 생활에 구체화된 모습을 부여하는 사회-공간-역사적인 과정이 단순히 도시에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 즉 도시 생활의 복잡한 구체성과 자극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저서 Postmetropolis의 1절에서 이와 같은 공간적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 발달의 지리역사적인 궤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최초의 도시발생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LA의 발달에 대한 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는 비판적 공간분석의 입장에서 도시발달의 공간적 구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 공간성(urban spatiality)을 실증적으로 지각되고(empirically perceived), 이론적으로 인지되며(theoretically conceived), 경험적으로 생활하는(experientially lived)공간이라는 서로 상호연관된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려 하였다. 소자의 이러한 시도는 Lefebvre의 공간에 대한 이론적 논제를 더욱 확대시켜 도시공간의 형성을 분석하려 했던 그의 두 번째 저서인 Thridspace의 틀을 그의 세 번째 저서에까지 계속 적용시켜 온 것이다. 첫 번째 공간인 지각공간(perceived sapce)은 도시공간(cityscape)을 도시적 생활 양식의 실제적인 형태와 구체적인 패턴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물질적인 공간 행위(spatial practices)에 의해 형성된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다. 두 번째 공간의 영역에서 도시공간은 보다 관념화되고, 표상으로 개념화되며,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상상 속의 인지공간(conceived space)으로 변화된다. 개인이나 집단적 경험이 구조화된 생활 공간(lived space)인 세 번째 공간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주체의 생활사(life strories)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에 의해 불완전하게나마 달성될 수 있다.

소자의 세 번째 저서인 Postmetropolis는 따라서 제1절(Part I)은 첫 번째 공간인 지각공간(perceived space), 제2절(Part II)은 인지공간(conceived space), 제3절(Part III)은 생활공간(lived space)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 번째 공간에 관한 부분인 제3절은 1992년 LA 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Rodney King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 느낌, 평가 등을 저자의 해석을 최대한 배제한 채 그대로 인용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는 생활세계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도시 연구에 있어서의 대안적인 저술 스타일(alternative mode of writing about lived space)을 소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차원의 공간성이 도시 공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이제까지의 도시 공간성의 해석에 지배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던, 도시공간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지도화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연구방법론에 비해, 도시공간에 대해 보다 다차원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대변되는 탈근대적 도시의 분석에 잠재적으로 무한한 사례 연구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탈근대적메트로폴리스로의 전환인가(?)

1960년대 이후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은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도시 재구조화(urban restructuring)과정을 경험하였다. 재구조화 과정이 과거 30여년간 그 어느 때 보다도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많은 도시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근본적인 기저에까지 미치는 혁명적인 변화로 보고 전통적인 연구의 틀은 더 이상 도시의 분석에 쓸모가 없다는 학자들에서부터 현재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려하는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소자의 견해는 그가 Postmetropolis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 세기말에 도시에서 나타났던 변화는 근대적 대도시(modern metropolis)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도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에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편에 가깝다. postmetropolis란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선택한 것은 변화된 것을 계속되는 것과 구분하려는 시도이며, postmetropolis는 탈근대적 대도시(postmodern metropolis)와 대체해서 쓰일

수 있고, 탈근대적 도시주의(postmodern urbanism)를 뜻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자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새롭고 변화된 현상들을 강조하면서, 그 간 그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구조주의적 또는 막스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도시 및 지역 연구에 비판적 문화연구(critical cultural studies)의 접목을 시도하며,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와 같은 범주를 구분하는 단순한 논리를 거부하고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Soja, 1999). 소자는 절충주의적인 시각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이질성이 증가되는 탈근대적 대도시에 대해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소자는 오랜 동안 그의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었던 구조주의적 시각에 대해 현재 이전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비판적 연구(critical studies)의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소자에게 로스엔젤레스라는 도시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도시와 도시 생활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규칙성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그는 근대적 대도시의 재구조화 과정을 설명하는 6개의 담론(discourse)을 종합하여 로스엔젤레스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 6개의 담론은 어느 하나가 보다 우월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도시의 변화과정의 각기 다른 측면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해 준다. 또, 이 담론들은 그간 ‘LA학파’의 연구 경향의 주요한 특징을 대표하는 이론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첫 번째의 담론은 후기포디즘적인 산업 대도시로(PostFordist Industrial Metropolis)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로스엔젤레스에서는 그간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에서와 같이 제조업의 비율이 저하되지 않았으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의 발전과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의류, 가구 산업 등의 발달이 동시에 도시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Miller, 2000). 후기포디즘적인 산업 대도시란 노동의 새로운 공간적 분업과 유연적 생

산체계에 따른 새로운 공간조직의 형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의 담론은 세계화 및 자본, 노동, 문화의 지역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이제까지 존재하였던 어떤 도시보다도 더욱 이질적인 도시공간을 이루게 된다는 postmetropolis의 세계 도시적 특성(Cosmopolis)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의 담론은 도시 재구조화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의 공간적 형태(spatial form)에 관한 것으로 교외 도시의 발달 및 도시 광역화에 따라 발전하는 외연도시적인 특성(Exopolis)을 강조한다. 네 번째로 논의되는 담론은 도시 재구조화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구조와 관련되는데, 현재의 대도시는 각기 다른 사회 집단간 또는 민족 및 인종 집단간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증가되어 파편적 도시(Fractal City)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로스엔젤레스에서 나타난 기술집약적인 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동시적인 발달에 따른 고용 구조의 변화는 사회 집단간의 임금격차의 증가를 유발하여 사회 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iller, 2001). 다섯 번째는 사유화된 공간이 공적인 공간을 압도하고 정교하게 발달된 감시 시스템에 의해 고립된 요새와 같은 도시(The Carceral Archipelago)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여섯 번째의 담론은 도시의 이미지가 가상공간(cyberspace)에서 재구조화되는 가상도시(Simcities)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 생활이 점차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실제 세계와 상상의 세계에 대한 구분이 점차 모호해져가고 있다.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 대한 6개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 로스엔젤레스라는 한 도시에 대한 중요한 경험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자의 연구는 세계화,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정보, 통신의 발달 및 가상공간의 발달 등에 따라 현재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시형태, 도시공간구조, 도시 내의 사회구조 등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탈근대적 도시연구가 현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탈근대적 도시 연구는 소자의 Postmetropolis 제3절에서 시도되었던 바와 같이 생활세계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해석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도시의 생활 공간(lived space)을 분석하는 것에 보다 적합하며, 도시 발달의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고, 각 사례들을 종합하여 일반화를 도출하는 일관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Cherot and Murray, 2002).

일반화라는 측면에서 과연 로스엔젤레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데, 독립된(incorporated) 많은 교외도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도시권을 가진 로스엔젤레스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도시에 있어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도시의 영역이 확대되는 경우는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유사한 도시발달의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후기포디즘적 도시로서의 로스엔젤레스의 발달과 그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및 그와 관련된 사회구조의 양극화 현상도 다른 도시들에서 나타나기는 어려운데, 많은 대도시지역에서는 최근 산업변화의 특징으로 2차 산업에 비해 3차 산업의 광범위한 성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또, 기술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여, 그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가 사회구조의 양극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도, 멕시코에서의 불법이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로스엔젤레스의 특수한 위치와 상황을 고려할 때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불법이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노동집약적 산업이 다시 부흥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도시구조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시발점이 된 Sassen의 연구에서와 같은 양극화 현상은 이민이 계속 유입되어 도시사회의 최하층에 위치하게 될 인구집단의 공급이 계속되는 미국의 도시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라는 사실은 도시공간구조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Sassen, 1991; Hamnett, 1994). 그리고, 다른 사례 연구에 따르면, 유럽지역의 도시에서는 도시 공간 구조의 양극화가 예상한 것보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세계화의 영향아래 있는 여러 도시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간적 구조를 하나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Musterd and Ostendorf, 1998; Marcuse and van Kempen, 2000). 그러므로, 로스엔젤레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향들과 그에 대한 개념화가 postmetropolis에 대한 정형화된 개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지역의 도시에 대해 LA 학파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주연 jieumma@freechal.com

참고문헌

- Brenner, Neil, 2001,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2, 386-88.
- Cherot, Natalie and Martin J. Murray, 2002, "Postmodern Urbanism: Reality or Fantasy," *Urban Affairs Review*, 37(3), 432-38.
- Dear, Michael and Steven Flusty, 1998, "Postmodern Urbanism,"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8(1), 50-72.
- Hamnett, Chris, 1994, "Social Polarization in Global Cities: Theory and Evidence," *Urban Studies*, 33, 401-24.
- Hartshorn, 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 Kloosterman, Robert and Sako Musterd, 2001, "The Polycentric Urban Region: Towards a Research Agenda," *Urban Studies*, 38(4), 623-33.
- Marcuse, Peter and Ronald van Kempen, 2000, *Globalizing Cities: A New Spatial Order?*, Blackwell.

- Miller, D.W., 2000, "The New Urban Studie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Aug. 18.
- Musterd, Sako and Wim Ostendorf, 1998,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Incomes in Dutch Cities: Myth and Reality, *Geojournal*, 46, 29-38.
-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 Press.
- Soja, Edward W., 1989, *Postmodern Geographies*, London: Verso.
- _____, 1996, *Thirdspace*, Oxford: Blackwell.
- _____, 1999, "In Different Spaces: The Cultural Turn in Urban and Regional Political Economy," *European Planning Studies*, 7(1), 65-75.
- _____, 2000,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Oxford: Blackwell.